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문화재 보수 '시스템' 먼저 보수하라

## 관청·공사현장 곳곳 부실의 씨앗 투성이

건봉사 능파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문화재 보수공사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불법하도급 횡행, 문화재 보수·감독 전문 인력난을 비롯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소유 사찰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모습 등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약 10개월의 능파교 공사기간동안 부실 요인들이 방치된 것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수의 근본적인 장애 요인은 예산 부족이다.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예를 보면, 2003년에 문화재청에 신청 접수된 1,540건(5,740억) 가운데 65% 수준에 불과한 1,001건(1,805억)만이 국고보조 대상으로 결정됐다. 상당수의 문화재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비지정문화재는 그런 기회조차 없다. 비지정문화재 중에도 훌륭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해, 비지정문화재라 해서 방치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불법하도급의 우려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이 이뤄지면 책정된 사업비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만이 집행되기 마련이고, 문화재 보수능력이 없는 업체가 시공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문화재보수 법은 문화재 보수공사 업체 자격 요건을 별도로 두고 문화재청이 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하도급 적발이 쉽지 않아 규제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수리업자 데이터 관리가 엉성해, 등록 취소된 사업주가 다른 회사를 설립해 새로 등록하더라도 가라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연속성이 취약한 사기업보다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이나 공사를 두어 직접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편이 공사 관리나 사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두터워져야 한다. 문화재보존처리 분야를 예로 들면 민고 일을 맡길 만한 곳이 몇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소수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비용 증가는 물론 업무 폭주로 인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무경험보다 필기시험이 주가 되는 현행 문화재보수기술자·기능인 자격시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기능인 양성 및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 ■ '능파교' 계기로 본 부실공사 원인들

예산부족... '비지정'은 대상조차 안돼  
불법하도급... 무자격자가 시공하기도  
감독부재... 전문인력 배치 극소수

### "사찰 의견 반영 길 조차 없어"

건봉사 능파교 공사를 감독한 고성군청 관계자가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도 홍예(虹霓, 무지개 형태를 이루는 부분)의 특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배치되면, 보수공사 시행 전에 해당 문화재 특성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성공적인 보수공사를 위해서는 문화재보수 전문인력의 충이

의 시험제도 개선과 교육과정 개발은 물론 기능인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찰소장 문화재 보수공사의 기술투비 시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화재의 법적 소유자인 사찰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이다. 현고 스님(문화재위원)은 "문화재 개·보수에 종단이나 사찰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서 사찰과 종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보수공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때다.

관련기사 13면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추대

14일 원로회의서, "종단번영 이루겠다"

태고종 제17세 종정에 혜초(慧草·사진)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일우)는 6월 14일 서울 봉원사 설립전에서 제4회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덕암 스님의 뒤를 잇는 새 종정에 혜초 스님을 추대했다.

혜초 스님은 종정으로 추대된 직후 "모든 종도들은 종단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부정 보다는 긍정

을, 불평 보다는 참여를, 분열 보다는 화합을 도모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자의 신분과 역량에 따라 할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한국불교의 번영과 종단의 발전



전을 견인해 나가라"는 유시를 내렸다. 스님은 앞으로 태고종립 선암사에 주석하면서 선암사 율원 설립을 비롯해 도제양성, 수행풍토 진작 등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1932년 경남 진양 생인 혜초 스님은 45년 진주 정곡사에서 청봉(淸峰) 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임제대(현 화원대) 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해인사, 선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해 선과 교를 겸비했다. 또한 태

고종의 한 맥을 형성해 온 대륜-덕암 스님의 정정수행 기풍을 이었다.

혜초 스님 특별법문 24·25면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총지종 효강 종령 추대법회

7월 20일, 서울 총지사서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曉岡) 종사의 추대법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린다.

이날 법회는 총지종 총리원장 우승 종사를 비롯한 총지종 승직자와 불교계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령의 권한을 상징하는 법통 전수식과 법의 수의식, 대중사 법계 서품식 등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 부처님 말씀 부처에 새겨 시원한 여름을~

단오절을 맞아 시원하게 더위를 떨쳐줄 부처전시회가 열렸다. 6월 18~22일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 사는 산사의 수행모습과 경구 등을 주제로 한 지묵 스님(법원사 한주)의 그림부채 50여점이 선보였다.

이번 부채 판매수익금은 '군불자 호신불 보내기'로 쓰여질 예정이다. 호국의 달 6월을 보내는 의미를 한층 더했다. 18일 지묵 스님이 전시장 찾은 새싹불자들에게 부채에 그림을 그려주며 부처님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 신계사 복원추진위 19일 발족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이하 신계사 복원추진위)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거행하고, 총 4년에 걸친 신계사 복원 불사에 착수했다.

신계사 복원추진위는 신계사 복원 및 발굴 불사의 실무역할을 비롯, 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대외홍보, 사업

진행과 관련 남북한 교류를 위한 행정 실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이 추진위원장을, 원주목사의원, 교구 분사 주지, 종회의원 스님들이 고문 및 추진위원을 맡았다.

지난 4월 6일 금강산에서 기공식을 거졌고 올해안에 3층 석탑과 대웅전을 복원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남부·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할'**

요즘 정은 스님들 힘든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도둑에서 여비

나를 움직이는 주인공을 잘 살피는 것도 수행

혜초 스님

그림·조태호

혜초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만년의 불교역사가 열린다."**

대역사 "동판 팔만대장경" 제작에 우리의 온 기술과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메탈포토(금속사진) 개발에 이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속하는 국보 32호 팔만대장경을 1만년 이상 보존 가능한 인형동판으로 복원하는 대역사의 주역, 우연에스는 시간을 뛰어넘는 금속사진 기술로 기록의 역사를 새롭게 써 가고 있습니다.

**동판예술의 창조자 - 우연에스**

1994년 설립되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우연에스(주)는 특히로 독특한 시장에서 고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기술 개발 및 연구와 및 일본, 미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호주의 해외지사를 개설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속판에 사진을 새겨 넣는 금속사진을 제작하는 우연에스는 1제곱센티미터 당 2만5000개의 작은 구멍을 금속판에 뚫는 '나노 테크닉 공법'을 통해 정교함을 더하고 있다.

**우연에스**

**동판이보장 제작사**  
국내 외의 정사판, 유화판, 정판, 각종의 기념판, 각종의 동수출할 수 있어 많은 사진과 기록을 연구 보존하기 위한 공사작업 (2004년 미국 조달업체와 연계사업으로 추진)

**국산인형동판 제작**  
2002년 부산아시아 게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태마의 거리로서 조형물의 벽면을 고급스럽고 보존성이 우수한 메탈포토로 마감

**인형메탈/방화문**  
엘리베이터/방화문에 장미 사진 등 이미지를 넣어 고급스러운 인형메탈/방화문 제작사업으로 새로운 문화공간 창조 함께 OTIS·LG·비씨·에스·엘. 현대, 현대와 엘리베이터 사업추진중

**복합시각(영리)사업**  
장미꽃의 변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영정사진, 코미, 만화, 나팔, 책, 주머니,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 사진 및 제작 (대규모 해외로보 시장 진출 중)

**공간 인테리어**  
기념, 학교, 교회, 사찰, 상담, 박물관 등으로 부터 일반주에 이르기까지 벽면이나 천정 등의 공간에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금속사진 기술을 도입하여 시공

**CD(원대인화판)**  
스타일의 사진과 기록을 영원이 간직할 수 있게 제작하여 음반시장과 콘서트 기념품으로 대량 판매 스포츠 스타, 스포츠 팀, 스포츠 스타들의 사진과 메시지가 담긴 특별 입장권 제작

**미니이체 방화문**  
미니이체 방화문, 장, 금속방화문, 열 등 고급스러운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정교하게 각인하여 메탈포토로 제작 전통문화 상품으로 개발

**관광상표**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한국 전통 소재와 세련된 기법의 금속사진을 영문 상품을 개발하여 한국 문화의 기술을 홍보 및 제작

**메탈포토**  
국내 외의 각종지에 방문한 관광객들의 사진과 기록을 연구 보존해줌으로써 그 장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증대 시켜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미래 비즈니스 테마파크 사업

**원판사업**  
1994년 연예인 결혼식의 웨딩 사진 제작을 시작으로 웨딩사진 전문업체에 정제된 웨딩사진의 축하메시지를 동판에 찍어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며, 특수 코팅 기술로 한 장의 원판에 여러 장의 사진을 담을 수 있다.

WWW.koreamemo.com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1-30 한국명품공공  
TEL. (02)615-0050 FAX. (02)615-0035